

십대여성은 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가.1)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2))

1. 들어가며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성적 범죄행위를 일컫는데, 필자는 현재 한국사회가 이 범죄의 범위에 대해 매우 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명확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³⁾ 네이버 지식백과⁴⁾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불법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유포(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소비(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디지털 그루밍⁵⁾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된다고 정리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보다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대표적 기관이나 공개적인 차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디지털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 범죄로 한정시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지원 경험을 통해 볼 때,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상에 국한되지 않고 결국 오프라인 세계 즉, 현실세계로 확장되어 실제적인 성폭력, 성매매 행위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데,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를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한정시킨다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현실세계로까지 확장되어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이나 성범죄자 처벌에 있어 분절적인 시각으로 피해자나 가해자를 바라보게 되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 정리된 디지털 성범

1) 이 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계간지 「젠더리뷰」 2020 가을호 Vol. 58호에 실린 글이다.

2)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제공, 사이버도래상담원 양성과 지속교육, 아동청소년/인터넷성매매관련 이슈 생산 및 연대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연대 등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사이버도래상담사업과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다.

3) <https://d4u.stop.or.kr/>

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2468&cid=43667&categoryId=43667>

5) 이는 온라인 채팅·모바일 메신저·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를 뜻한다. 디지털 그루밍 가해자들은 우선 피해자를 물색하고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얼굴 사진과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오프라인 만남 성적 촬영물 등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후 함께 나눴던 대화 내용과 전송했던 파일 등의 유포를 빌미로 자신의 말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촬영물을 얻어내거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디지털 성범죄(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2468&cid=43667&categoryId=43667>

죄의 정의를 현실세계에 확장되어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 행위까지 포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필자는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성적 범죄행위를 지칭한다고 정의한다.

2. 사례를 통해 본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⁶⁾

1)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폭력/성매매

초등학생 아영이는 친구들과 놀다가 채팅 어플에 대해 듣게 되었다. 호기심에 채팅 어플을 내려 깔고 채팅방에 입장하자 수많은 쪽지들이 도착하였다. 재미있고 신기한 마음에 쪽지들을 열어봤지만 쪽지의 대부분은 용돈제공, 조건만남 요구였다. 단순 대화를 원하는 쪽지에 답장을 보내면서 남성 A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자신을 30대라고 소개한 A는 아영이에게 페이스북 아이디를 요구하였고, 별 생각없이 아영이는 아이디를 보내주었다. 그 후 A는 수시로 문자를 보내며 인사를 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일어났어? 학교 가야지 우리 공주님”, “잠꾸러기~ㅋㅋ”, 오후에는 “학교는 잘 다녀왔어?” “오늘은 어떻게 보냈어?”라며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A는 아영이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재학 중인 학교는 물론 관심사나 취향, 크고 작은 심리 변화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대화는 물 흐르듯 흘렀고 A는 SNS를 통해 기프티콘과 문화상품권을 보내며 아영이의 환심을 샀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데다 부모님이 안 계셨던 아영이는 “예쁘다” “보고 싶다”며 애정을 주는 A와의 대화가 즐거웠다. 그러던 중 A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마음이 아프다. 너는 남자친구가 있냐? 어디까지 가봤냐? 뽀뽀는 해봤냐?” 는 등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자 아영이는 대화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A는 끈질기게 아영이에게 쪽지를 보내고 포기하지 않았다. 대화가 끊어지고 다시 심심해진 아영이는 결국 A와 다시 대화를 하게 되었다. A의 집요한 성적인 질문에 아영이는 마치 자신이 남자친구가 있고, 그 남자친구와 성적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 대화를 이어갔다. A는 아영이에게 자신과 한번 만나 줄 것을 요청했다. 아영이는 성인 남성과 만나는 것이 겁이나 거절하였지만, A는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너무 외롭다.” 며 매달렸다. 아영이는 “나는 초등학생이다.”라고 했지만, A는 “나는 초등학생 따먹는게 로망이다”며 줄기차게 매달리며 졸랐다. A는 자신의 차안에서 자위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아영이를 졸라댔고, 호기심과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해주겠다’며 A와 만나기로 하였다. 처음 만난 날 A는 차안에서 아영이와 단둘이 있으면서 아영이에게 애원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시도하고 헤어졌다. 그후에도 A는 지속적으로 아영이가 좋아하는 딸기우유나 오징어 등을 사주고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수차례 성폭행하고 용돈을 제공하였다. 이런 일을 겪었지만 아영이는 이 상황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A는 신고가 되었고, 경찰에 잡힌 후 A가 50대 남성으로 2명의 성인 아들이 있음이 밝혀졌다.

2) 다양한 유포·협박 사례⁷⁾

(1) "나 컴퓨터 전공자인데 네가 누군지 알아"

6) 사례들은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지원한 사례들이며 각 사례들은 당사자들에게 활용동의를 받았지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날짜, 지역 등이 가공되거나 삭제하였음을 밝힌다.

7) 출처: <https://teen-it.kr/for-teen>

십대여성인권센터 IT지원단 ‘women do IT’에서 2020년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깨알 가이드’ 깨톡(<https://teen-it.kr/>)을 개발하였다. ‘깨톡’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온라인 플랫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착취의 위험성과 예방 안내, 앱 개발자들이 알아야 할 윤리와 앱 내 최소한의 안전·규제조치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안내되어 있는 온라인 가이드이다.

메신저 A에서 여러 사용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사진/영상 등을 주고받던 나영이에게 한 남성이 메시지를 보냈다. 이 남성은 다짜고짜 나영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 나 컴퓨터 전공자야. 너 개인정보를 털어서 이전에 너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눈 음란한 대화나 사진, 영상 같은 거 다 해킹해서 퍼뜨릴 거야. 막고 싶으면 나랑 영상통화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남성의 지속적인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아영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2) "이벤트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다영이는 자주 사용하던 메신저에서 갑작스럽게 모르는 남성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남성은 다영이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상금으로 많은 돈을 보내려 하는데 조건이 있다고 하였다. "성기 사진을 보내주시고, 알몸이 보이도록 영상통화를 해주세요" 다영이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혹해서, 얼굴만 보이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남성이 요구한 대로 따랐다. 그러나 남성은 사진과 영상 통화를 받기만 하고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더해 메신저에 공개되어 있던 다영이의 위치 정보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여 계속 직접 만나자고 요구하였다. 다영이는 남성의 협박과 성적인 요구를 계속 거절하였다. 그러자 남성은 메신저의 여러 계정을 구매하여 다영이를 끈질기게 협박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다영이는 남성의 요구로 찍었던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 통화 내용이 퍼트려질 것 같다는 불안함과 주변에 알려져 피해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3) "오빠는 너를 이해해"

어느 날 어떤 남성이 SNS 친구 추가, 댓글 등을 통해 수영이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다. 이 남성은 수영이의 게시물들을 보고 수영이에게 "오빠가 담배 대신 사줄게" 하며 접근했다. 처음에는 수영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다가온 남성은, "나도 청소년기에 너같았다" "동생 같아서 그래" 라는 말을 하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남성은 수영이와 친해지자 점점 태도가 돌변하여,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 "만날 때마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 라는 등의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 그리고 만나면서 계속 성관계를 가지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설득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남성의 지인으로부터 성매매 당사자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신고당할 두려움을 느낀 수영이는 학교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해당 사건은 학교전담경찰에게 전달되었고, 이후 십대여성인권센터에 연계 되었다.

(4) "제 계정이 해킹 당했어요"

어느 날 자영이는 깜짝 놀랐다. 자영이의 사진과 이름을 사칭한 계정이 SNS에 있었던 것이다. 그 계정에서는 신던 스타킹이나 팬티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자영이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성적인 계정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하고 두려워 "내가 본인인데 계정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오히려 계정 사용자는 계정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성적인 영상과 사진을 강요하며, 보내지 않을 시에는 계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자영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5) 일탈계, "내가 도와줄게"

차영이는 SNS에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벗은 몸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사용자가 차영이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는 벗은 몸 사진을 올리는 계정을 신고하고 있어. 너 계정도 신고할거야." 경찰에 신고 당할까봐 두려워진 차영이는 게시물을 삭제한 후 '신고 당할 것 같다'라는 게시글을 새로 올렸다. 그러자 새로운 댓글이 달렸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도움이 필요했던 차영이는 댓글을 남긴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변호사는 오히려 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한 달 동안 자신의 노예를 하라며 얼굴이 나온 몸 사진을 요구했다. 차영이는 신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또 자신의 선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라고 한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알고보니 그는 변호사가 아니었으며 또 사건을 해결해주지 않았다. 속은 것을 알게 된 차영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6) "날 좋아한다면 너의 몸을 보여 줘"

"널 좋아해", 하영이는 메신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남성에게 고백을 받았다. 그리고 둘은 사귀는 연인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남성은 고백이 받아들여지자마자 바로 '섹스', '몸' 등에 대한 주제로만 이야기를 나누며 하영이와 직접 만나자고 즐겼다. 하영이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번에는 몸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연인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된 하영이는 남성에게 몸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남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하영이에게 직접 만나자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너가 보낸 몸 사진을 인터넷에 뿌릴거야'라고 협박하며, A가 만나는 걸 거절할 때마다 더 많은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협박 속에 남성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하영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7) "너 사진 합성할거야"

"나 여자야, 너랑 동갑이고." 미영이는 랜덤채팅 앱에서 자신과 또래의 여자 친구를 만났다. 나이와 성별이 같아 반가운 마음에 대화를 나누었는데, 상대방이 미영이에게 카톡이나 라인 등 다른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미영이는 의심 없이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런데 프로필 사진을 보내자마자 상대방이 갑자기 돌변해 협박하기 시작했다. "너가 보내 준 사진을 다른 알몸 사진이랑 합성해서 인터넷에 퍼뜨릴거야. 이거 막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할걸?"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몸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합성되어 퍼뜨려질 것에 불안해진 미영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3) 성착취 영상제작 강요의 구체적 형태⁸⁾

(전략) 김OO은 라인 보이스톡을 하던 중 영상통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싫다고 하자 내가 컴퓨터로 영화나 영상 CG처리 하는 일을 하는데 너가 누구인지 알아내어 이전에 음란한 대화를 한 사람들과 본인과 음란한 대화를 한 것을 찾아내어 저의 부모님과 주변사람들, 제가 아는 모두들에게 퍼트린다고 했고 인터넷에도 퍼트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겁이나 어쩔 수 없이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김OO은 저에게 옷을 벗으라 하며 핸드폰을 잘 볼 수 있도록 고정하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고정할 데를 못 찾고 있자 빨리 안하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양쪽 가슴에 2개, 성기에 집게 1개를 꽂고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두개를 입에 깊게 넣으라고 하며 얼굴을 보이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얼굴은 안되요.."라고 말했지만 계속 강요하고 요도를 찾으

8)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가 직접 써서 법원에 제출했던 탄원서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라고 했으며, 잘 볼 수 있게 핸드폰 가까이 가서 완전히 벌려 성기에 있는 집계를 빼라고 하며 요도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요도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오줌 나오는 데라고 알려 주며 계속 찾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아팠지만 너무 무서워 시키는 대로 하다가 간신히 찾았지만 거기에 면봉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아.." 라고 하며 아프다고 표현했지만 계속 강요를 하여 계속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요도에 면봉을 넣는 것을 성공하면 토하는 것은 봐주겠다고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에 면봉에 피가 묻어 이야기를 하자 "니가 못 찾아서 그러는 걸 왜 나한테 그래?"라며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였고, 면봉의 솜 부분이 떨어지려고 하자 하나 더 꺼내라고 해서 손이 너무 떨려 면봉을 떨어뜨렸는데 피고인이 "너 지금 던진거냐? 미쳤냐? 똑바로 해라"라고 하여 다시 면봉을 꺼내 계속 시도를 하던 중 항문에도 면봉을 넣으라고 시켰습니다. (생략)..... 화를 내며 빨리 해라 라는 말과 욕을 반복 하여 4개까지 넣었고 (생략)..... 볼펜을 (생략)..... 항문에 (생략)..... 저는 너무 무서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동안 김OO은 "씨발 너 진짜 혼나봐야 정신차리냐?" "쫓 된다는데 나 같으면 시키는 거 다 하겠다. 살고 싶으면 좋은 말로 할 때 해라"라며 끊임없이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계속 시키는 대로 했지만.....(생략) 저는 계속 기침과 헛구역질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넣어, 빨리 넣어. 토 안해? 빨리하라고. 씨발 미친년아 쫓 되고 싶냐. 주변사람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 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에도 제가 토를 하지 못하자 온갖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영상통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특으로 또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계를 꽂고 있는 저의 영상의 일부를 캡처 해서 보내며 "이거 올리겠다. 지금 인터넷 업로드 중이다. 잘 지내라. 한 이틀정도는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을 거야. 너 인터넷에서 존나 유명해질 거야"라며 웃으면서 이야기 했고.....(생략)

4) 사진유포협박을 통한 성매매알선 강요

17살인 가영이는 학업 스트레스에 지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익명의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때 한 남성A가 가영이에게 이상한 사진을 보냈다. 그것이 무엇이나며 시작된 대화는 라인으로 옮겨 계속되었다. 가영이는 사진 속의 이상한 도구가 성적 행위를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그 남성A와의 대화에 빠져들었다. 하나하나 너무나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남성A와 밤새도록 대화를 하던 중, 남성A는 갑자기 너는 성적으로 무슨 성향이냐고 물었다. 당황한 가영이는 '나는 아직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대답했다. 남성A는 '요즘은 초등학교도 자기의 성향을 다 안다.'며 가영이의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진보내기를 거절한 가영이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 너와 대화를 나누는 나를 못믿는 거냐.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얼굴만 빼고 보내면 되지 않느냐. 내 사진도 보낼테니 무슨 일이 있으면 너도 내 사진을 갖고 있으니 괜찮지 않겠냐. 너무나 너를 보고싶다.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차단을 하겠다는 등 갖은 감언이설로 사진보낼 것을 강권하였다. 가영이는 대화가 중단될 것이 아쉽기도 하고, 긴 시간동안 친절하게 대화를 이끌어 준 남성A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얼굴만 보내지 않으면 별일없지 않을까 싶어 자신의 몸사진을 보내주었다. 남성A는 그 순간부터 돌변하였다. 사진을 라인에 있는 친구들에게 공개하겠다, 부모나 학교에 알릴테니 나를 한번만 만나달라, 우리가 만나면 보는 앞에서 지워주겠다며 협박하여 1회 남성A의 집에서 만남을 가졌고, 거기서 성폭행당하였다. 그러나 가영이는 신고할 수 없었고, 남성A는 다시 지속적으로 사진을 가지고 '노예주인' 관계로 만날 것을 강요하였다. 그 이후에도 사진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영이는 남성A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때마다 성폭행이 있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주 늦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딸에게 엄마의 야

단은 점점 강도가 심해졌다. 그때마다 남성A는 가영이를 위로해주었고 가출을 권유하였다. 결국 가영이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성공해서 엄마를 만나라는 유혹에 넘어가 재워줄 수 있다는 남성A의 말을 믿고 가출하였다. 가출한 후 가영이는 남성A의 집에 철저히 고립, 감금되어 지속적인 성매수알선 강요 및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 남성A는 생활비와 월세를 벌여오라며 성매매를 알선강요하였고, 미성년자인 가영이가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자신의 통장에 성매수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가영이는 성매매 상황에서 성매수 남성B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신고할 수 없었던 가영이가 도움을 요청한 알선자 남성A와 성매수 남성B 간의 다툼으로 경찰에 신고 되면서 가영이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현장에 출두한 경찰은 가영이와 남성A가 싸고 성매수 남성B에게 '조건사기'를 쳤다고 의심, 경찰서로 이동 중 가영이는 남성A와 분리되지 못했다. 이에 남성A는 가영이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연인관계로, 성매매는 가영이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진술할 것을 강요·협박하였다.

3. 십대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디지털 매체들

1)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들⁹⁾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팀에서는 십대 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채팅 사이트, 포털, SNS, 어플리케이션, 인터넷방송 등에서 성착취의 위험성과 사건 발생시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웹전단, 채팅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예방, 조기 개입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9)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팀 활동 내용

항목		내용	
사이트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 웹전단 배포	
	포털사이트	지식인 네이버·다음 쪽지, 메일, 댓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	앙톡 (채팅형 쪽지 발송) 영톡 (채팅형 쪽지 발송) 82톡 (채팅형 쪽지 발송) 앙채팅 (채팅형 쪽지 발송) 일탈톡 (채팅형 쪽지 발송) 앙팅 (채팅형 쪽지 발송) 낮선사람 랜덤채팅 (채팅형 쪽지 발송) 채팅몬 (채팅형 쪽지 발송) 헤이팅 (채팅형 쪽지 발송) 심팅 (채팅형 쪽지 발송) 꿀톡 (채팅형 쪽지 발송) 원나잇톡 (채팅형 쪽지 발송) 앙챗 (채팅형 쪽지 발송) 다톡 (채팅형 쪽지 발송) 아자르 (영상형 홍보멘트 발송) 국민어장 (채팅형 쪽지 발송) 핑톡 (채팅형 쪽지 발송) 속삭임 (채팅형 쪽지 발송) 기타 (채팅형 홍보멘트 발송) 카카오톡 오픈채팅 (채팅형 쪽지 발송) 숨사탕, 모씨, 밤비, 1km 즐톡톡 등 (게시판형 웹전단 게시) 신생 (국민어장S, 톤더, 채팅고, 블라챗, 페잉, 위커, 익명채팅(랜챗/랜덤채팅), 앙쿵, 올톡

2) 신고 현황¹⁰⁾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팀에서는 각종 SNS·채팅 어플리케이션·인터넷방송·사이트 등에서 성착취 의심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경찰청 등에 신고하고 있다.

(1) 신고

구분	총계	내부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경찰청
건	762	241	447	74

(2) 내부신고 세부내용 : 총 241건

구분	총계	사이트							인터넷 방송	어플리케이션 *
		세이클럽	네이버	다음	카톡 오픈채팅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건	241	3	-	-	89	21	-	44	57	27

* 어플리케이션 내부신고 시 이용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플리케이션 내부신

10)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팀 활동 내용

고를 진행함(국민□, 원□톡, 속□임, □톡)

(3) 내부신고 처리결과

구분	총계	이용제한				계정 삭제			게시글 삭제				
		세이클럽	다음	인터넷방송	트위터	세이클럽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	다음	인스타그램	카톡오픈채팅	인터넷방송
건	241	-	-	-	1	1	1	6	-	-	-	2	4

해당없음	내용확인 불가	미상*									
인스타그램	인터넷방송	세이클럽	네이버	다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톡오픈채팅	인터넷방송	어플리케이션	트위터	
-	-	2	-	-	20	-	87	53	27	37	

* 각 사이트의 신고 처리 기준이 다르고, 신고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세이클럽의 경우 모니터링한 불량 이용자를 메일로 직접 신고 후 처리결과를 안내받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는 신고를 진행하였을 때 계정 삭제 처리가 된 경우에만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네이버, 다음, 인터넷방송(유튜브, 아프□카TV 등), 어플리케이션은 신고 처리결과를 따로 알려주지 않아 신고 결과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세부내용 : 총 447건

구분	총계	사이트(인터넷방송 포함)	어플리케이션
건	447	280	167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신고 처리결과(인터넷방송 포함)¹¹⁾

- 11) 1) 접속차단 :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ISP) 등에게 국내 이용자가 해당 정보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 요청
- 2) 각하 : 심의불가
 - (1) 미유통 :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진 삭제 및 폐쇄되는 등 현재 유통되지 않는 상태이거나, 신고접수 후 업데이트 등으로 URL이 변경되어 추적이 어려움.
 - (2) 중복신고 : 동일한 정보에 대해 심의결정이 이루어졌거나, 신고접수가 중복되어 각하 처리됨.
 - (3) 요건불비 : 심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
- 3) 이용자 이용해지 : 해당 어플리케이션 불량이용자의 이용을 해지 함(휴대폰 단말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재가입 및 재접속 불가능).
- 4) 이용자 이용정지 : 해당 어플리케이션 불량이용자의 이용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함.
- 5) 해당없음 : 신고내용이 성매매 정황에 해당되지 않음.
- 6) 처리불가 : 해외서버로 인한 기술력 부족으로 처리 불가능함.
- 7) 내용확인불가 : 신고접수 확인시점에서 신고대상 정보가 이미 삭제되었거나 폐쇄되는 등의 사유로 신고 대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대상이 불명확하거나 신고내용이 부정확하여 해당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
- 8) 특정 검색결과 확인 불가: 검색결과 페이지의 여러 게시물 중에서 신고하려는 게시물이 특정되지 않아 민원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9)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판단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는 청소년 유해표시, 광고선전 제한 등의 청소년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됨.
- 10) 자율심의결정: 일반 음란물이 아닌 피해자가 특정되는 디지털성범죄로 확인된 경우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조치함.

구분	총계	접속 차단		각하			처리 불가	해당 없음	내용 확인 불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자율심의결정	처리중
		국외	국내	미유통	중복 신고	요건 불비						
건	280	82	1	41	44	3	-	17	64	2	1	25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플리케이션 신고 처리결과

구분	총계	각하			이용자 이용 해지	이용자 이용 정지	내용 확인 불가	해당 없음	특정 검색 결과 불가	검색 확인 불가	처리중
		미유통	중복 신고	요건 불비							
건	167	-	11	2	71	-	-	81	-	-	2

(7) 수사기관에 신고 현황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19년 4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 ‘앙챗’에서 발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판매 성범죄자를 고발하였다.

① 스마트폰 채팅 어플 앙챗에서 발견한 영상판매 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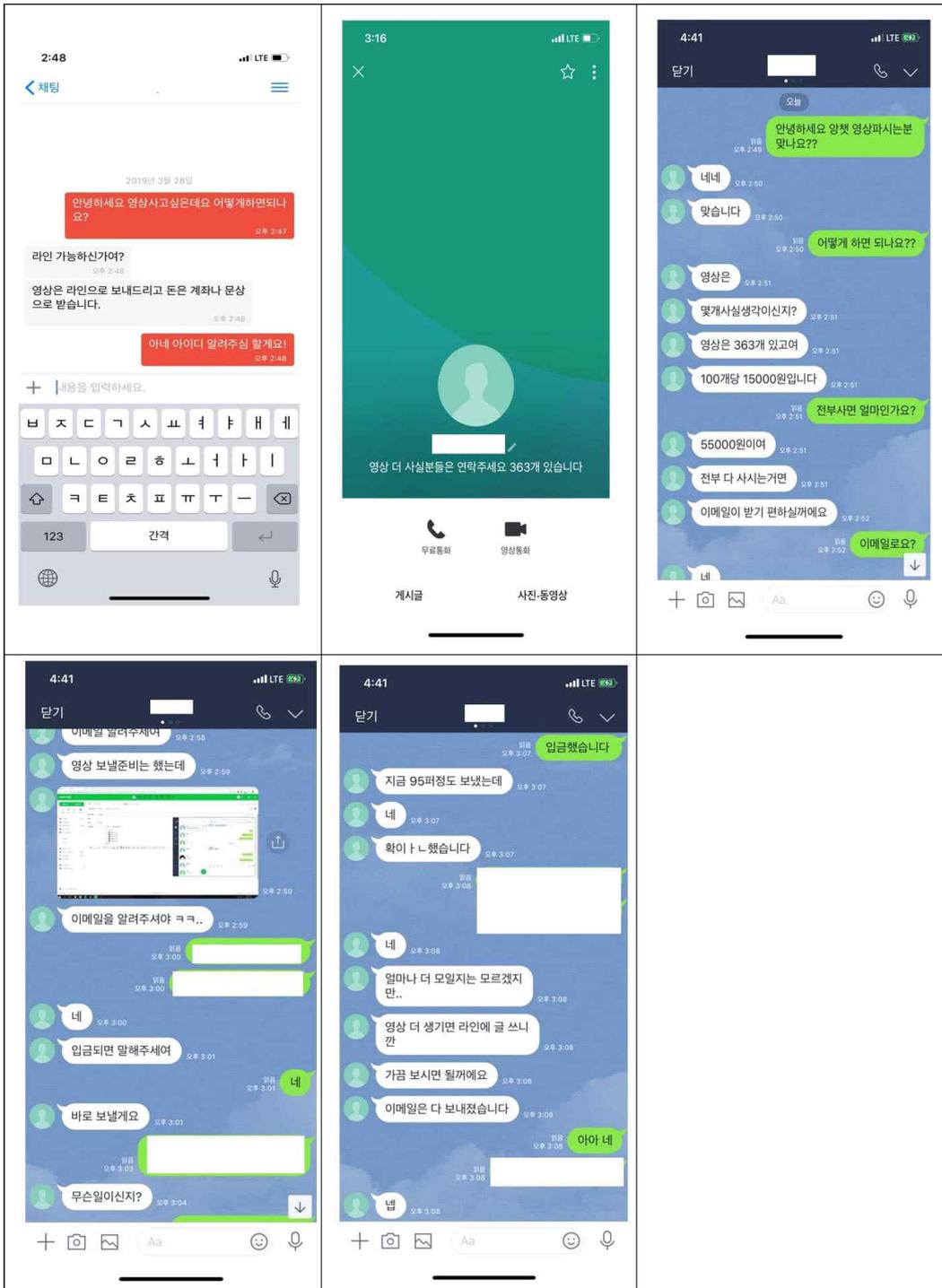
주인님구해요 24세 여자 8km 2분 전

남자들끼리 미이고 중딩 고딩들꺼 영상 363개 100개당 1.5 전부 다 해서 5.5에 가져갈 분들은 연락주시면서 바로 라_딩 보내주시면 됩니다
샘플x 다른건 다 가능 쿨거래 환영

메로 21세 여자 8km 2분 전

남자들끼리 미고 중딩 고딩들꺼 영상 363개 100개당 1.5(만오천원) 전부 다 해서 5.5(오만오천원)에 가져갈 분들은 연락 주시면 바로 라디(라인아이디) 보내주시면 됩니다. 샘플x 다른건 다 가능 쿨거래 환영

② 구입 과정 대화



- ③ 아첨법 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고발조치 하였으며, 제작과정부터 수사할 것을 요청함.
- ④ 구속 기소 되었고, 2020년 3월말 1심에서 징역1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범죄수익금 984만여원추징 선고됨.
- ⑤ 2020년 2월부터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7월까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76건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였다.(닉네임, 주소 등 삭제, 아이디 변형)

번호	트위터	텔레그램	라인	카톡	내용
1	e3I6tzo □ j 3				"트위터에서 타인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여 프로필을 작성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 유포, 영리목적으로 판매함."
7	Kt□p2	qw○01	qw△140		트위터, 텔레그램, 라인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을 게시 및 영리목적으로 판매함. 텔레그램 방 접속 시 불법촬영 유출본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음.
11	alalr□	no○un			트위터, 텔레그램에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프로필을 작성하였으며, 불법 촬영 영상물을 게시, 유포, 소지, 판매하는 텔레그램 방의 입장권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함. 텔레그램 n번방 입장료 받고 팔던 사람임.
20	□qlq1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중이며, 트위터에서 홍보와 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 유포, 영리목적으로 판매함. 문익는 트위터 디엠이나 라인으로 보내 달라고 함.
33	yjWc□ m G □ 7W			0 6 △ a	"06 알몸 사진, 동영상. 가지고 있는 모든 사진 영상대충(160장) 5천원" 트위터, 카톡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을 게시 및 영리목적으로 판매함.
46	g h 0 □ 8928	q○17			트위터,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글을 작성함. 중고딩 영상 팜/샘플 인증 가능!/ 이벤트 기간만 가능함!!
53				오픈 채팅	1번째 □ 젖은 전복방 2번째 마르□ 샘플 3번째 □ 영상저장소 5번째 리미□디션 7번째 비발□계 중 봄 1악장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운영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 소지, 유통하며 불법 토토, 사행성 도박 등에 가입 행위를 조장함. 현재까지 7번방을 옮겼으며, 개인정보가 필수적인 사행성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 방의 주소를 주지 않겠다고 함.

4. 십대여성들은 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가?

필자는 이 글에서 십대여성들이 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우선 십대여성들이 겪었던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와 유입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보여 주었다. 그 다음으로는 십대여성들을 유인하는 각종 디지털 매체의 종류와 성범죄 유인 정황이 보이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에 대한 신고현황과 처리 결과,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디지털 매체 안에서의 성착취 영상 판매에 대해 알렸다. 많은 독자들은 이러한 필자의 자료배치를 보면서 벌써 필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렇다. 필자가 현장에서 본 것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십대여성들이 그 세대에 맞는 성장과정을 겪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이유이다. 십대여성들은 본인들에게 주어진 디지털 세계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체험하고 있다. 현

재 그들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서 배제될 것이다. 공부를 잘해야 미래가 좋게 보장된다는 아직 경험해보지도 못한 미래를 위해 저당잡힌 답답한 현재를 살아내기 위해 숨도 칠수 없이 촘촘하게 짜여진 정해진 일정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알고 싶고 겪고 싶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다. 눈도 맞추지 않고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부모님들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친밀감과 소통을 그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얻고 싶어한다. 어쩌면 모두 경쟁자일 뿐인 현실에 존재하는 친구들보다 이해관계로 전혀 엮여 있지 않은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친절한 누군가를 친구로 사귀고 싶다. 현실에선 찌질한 루저같은 뿐이지만, 익명으로 아무나 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그들은 누구도 무엇도 될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몸의 변화를 보면서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욕구, 이것이 그렇게 나쁜 행위라는 것인가? 매일매일 섭취하는 수많은 정보들은 성공한 여성배우나 여성 모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몸을 가졌는지 여성들에게 그 몸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무언가 기성세대에게는 용납되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파격적인 행동은 결국 성범죄의 표적이 될 뿐이었다.

그렇다면 십대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론은 생각하지 말고, 느끼려하지 말고, 사이버 상에서 소통하지 말고, 너무 일찍 사랑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디지털 매체는 위험하니 접근하지 말고,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계들은 사용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고, 친구도 가정형편이 좋은 아이로 사귀게 하고 성인이 되어 새로운 보호자가 생길 때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부모가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오늘 현재 한국사회에서 십대여성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말이고, 탈시대적, 몰역사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일 뿐이다.

필자가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십대여성들은 건강하게 당당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놀랍도록 용감하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가고 있었다. 인류가 한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계의 주역으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십대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필자가 제안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십대여성들과 십대남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디지털 세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세계에 맞는 새로운 규범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필자는 “십대여성은 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가?”라는 주제로 글을 제안받으면서 상당한 저항감이 있었다. 질문이 이상했다. 마치 십대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주체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무엇을 듣고 싶었을까? 십대여성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우리 십대여성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성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이라서? 디지털 매체가 십대여성들을 소위 ‘정상성’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어서? 그렇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다. 디지털 세계가 현실세계보다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정해진 인류의 미래에서 자라나는 세대인 십대여성들의 디지털 세계로의 참여는 막아서도 막을 수도 없는 너무나 지당한 방향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혐오와 차별로 도배되어 있고, 성평등하지 않은 디지털 세계에서 그나마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보호망도 없는 현실이 일어나면 안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일어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을 마치면서 질문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질문은 이미 프레임이다. 이 질문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려 하면 결국 십대여성들을 그들의 세계에서 도태시키고 몰역사적으로 자라도록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질문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십대(여성과 남성을 모

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보호망은 무엇인가?”이다.